

2020 국악창작곡 개발 '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 심사결과

□ 심사개요

- 심사명 : 2020 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0년 6월 27일(토), 10:00~17:0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 심사위원 : 박병오(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작곡가), 김중우('커먼그라운드' 리더, 'SNL코리아' 음악감독), 이슬기(가야금 연주자,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 이아람('블랙스트링', '음악그룹 나무' 멤버,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감독), 조엘라(MBN '보이스퀸' 출연, '14년 제1회 창작국악극대상 여자 창우상)
- 심사항목 : 대중성(30%), 독창성과 창의성(30%), 국악적 요소의 창조적 계승(20%), 음악의 완성도(20%)

□ 심사결과

- 총 10팀 선정 (노래곡 8팀, 연주곡 2팀) ※경연순서 순

경연순서	팀명	곡명	장르구분
3	BoB	괘지나 칭칭(Ching Ching) 나네	노래곡
5	groove&	Run, Ran, Run	연주곡
10	속속곳	Plankton	노래곡
11	심풀	상여가 실은 청춘	노래곡
12	온새미로	청청도드리靑淸	연주곡
13	FUN소리꾼	눈치코치	노래곡
14	천군만마	알라알라성	노래곡
16	소리양상블 ∞공	아랑가	노래곡
17	모꼬지	이판사판	노래곡
19	음악제작소 WeMu	어-허 굿짜	노래곡

○ 주요 심사평

이름	주요 심사평
박병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음악의 다양성은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예술적 경험이기때 <21C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연주자와 작곡가, 그리고 동서양의 콜라보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결합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전통이 될 지금의 실험적 음악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 아쉬운 점은 항상 있듯이, "전통음악의 특색을 살린다는 말은 전통악기의 사용이 아닌 전통악기의 특징을 음악 속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중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예선을 통해 19팀의 다양한 음악적 기량과 해석에 귀가 즐거웠습니다. 국악기와 양악기가 서로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소리라는 뚜렷한 색채감을 보여준 참가자들의 무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K-POP이 새로운 길을 열었듯, 이번 2차 예선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창작곡들을 통해 국악의 글로벌화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소문대로 이 시대의 국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공연이 있는가 하면, 재기발랄한 퍼포먼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 공연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모두 치열하게 고민하며 땀방울을 흘렸으리라 생각합니다. -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음악 어법의 체득"을 통한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팀 사운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기본기를 더욱 충실히 연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정 편성(ex. 소리, 해금, 밴드)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하게, 특히 기악 연주팀이 많이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해도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앞으로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아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열린 해석의 곡이 많이 등장하여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MTR, 전자음악, 샘플링 등을 사용하여, 기존에 단순히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만나 콜라보한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2차 예선의 전반적인 기조로 보입니다. 멤버 구성원의 인원과 관계없이 실연으로 보여주기 힘든 다양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 다만, 컨셉이 음악의 기본적인 연주와 구성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이는 팀이 더러 있어 아쉬웠습니다. - 무대에서 연주로 관객과 만나야 하는 음악인들이(국악인들이) 연주의 본질을 챙겨 타 장르의 예술가와 만나 연주를 하더라도(국내, 해외 공히) 전혀 밀리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앞으로 더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가 있는 양질의 공연이 <21C한국음악프로젝트>무대를 가득 채우기를 희망합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조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팀들을 보며 영광스러웠습니다. - 다만, 유행을 따라 음악적 특색이 없어지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 또한, 올해는 연주팀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 변화와 전통을 조화롭게 음악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향후 일정(안)

구분	기간 및 장소	비고
본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7월 6일(월), 15:00 / 국악방송 대회의실(예정)	팀별 대표 1인 참가
본선 진출팀 대상 멘토링 진행	7월 / 외부 연습실 또는 국악방송	희망팀에 한해
프로필 사진 및 영상 촬영	7월 초~중순 / 외부	
음원 녹음	8월 / 외부 스튜디오	
라디오 출연	9월 1~2주 중 / 국악방송	
본선 (실연심사 / 공개)	9월 16일(수), 19:00 / 국립국악원 예약당	현장 결과발표 및 시상식 진행

□ 문의처

- o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담당자 02-300-9973 / jinsaem@igbf.kr